

# 8·6 히로시마 평화모임 2023 시민에 의한 평화선언(안)

피폭·패전 78년

히로시마로부터 비무장·비동맹중립의 일본을  
~NATO 세계화를 반대하여 동아시아공동체를 이룩하자~

오키나와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원폭공격,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78년을 맞이한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아시아태평양침략전쟁의 가해책임과 미국의 군산학복합체에 의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무차별대량학살의 가해책임을 추궁하여 민주주의와 공존하지 않는 천황제를 유지한 미국의 피점령국가로서 시작된 “전후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계속 추궁해왔다.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청일전쟁이후 아시아침략의 출격거점인 우지나에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진행되었다. 우리 예상대로 “히로시마”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라는 권력자의 군사확대와 군사동맹강화, 우크라이나전쟁격화, 확대핵억지강화, 전쟁준비에 이용되었다. 기시다수상이 퍼뜨린 “핵없는 세계에로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문구는 “핵억제를 전제로 한 해결”이라는 정상성명에 의하여 완전히 그 본성이 드러났으며 “핵 버튼”이 평화공원에 반입되었다. 전쟁중의 일방의 당사자를 환영한 본정상회의는 세계의 미래와 평화를 논하는 마당이라고는 도저히 말할수 없다. 우크라이나전쟁의 군사지원 강화, 중국·러시아에 대한 군사강화가 확인되어 일미한군사동맹의 강화와 NATO의 전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되려고 하고있다.

지금 피폭지·히로시마에서는 일미지배층이 히로시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일미의 가해책임·전쟁범죄를 서로 은폐함으로써 핵군사력을 인정하여 전쟁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계획이 진행중이다. 반전·핵폐절이라는 원폭피해자의 오늘까지의 외침은 배신당하여 또 변질하려고 하고있다.

러시아에 의한 크림리아반도병합 8년후인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이 1년이상 계속되어 지금도 처참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러시아군의 즉시철수를 요구하며 러시아의 약체화에 편상하려는 NATO의 과잉한 개입에 반대하며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9조를 기초로 하고 모든 군사지원을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러시아의 침략을 용서하지 않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기본방침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의 화평교섭실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추종 정책을 포기하여 중국과 브라질, 터키, 아랍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ASEAN 제국 등의 활동과 연대하여 유엔총회를 견인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미한군사동맹 강화와 NATO 세계화에 반대하여 엄한 상황속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하는 러시아 민중,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민중과 연대하여 세계적인 반전운동을 일으켜나갈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2000년 7월에 개최된 오키나와정상회의에 대항하는 자리에서 이미 확인한 “비폭력과 대화에 의한 민중시점에서의 평화구상”의 운동을 더 발전시켜 경제·지구환경을 포함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글로벌사회변혁을 지향하자.

미중대립을 넘어 비패권·비군사·연대의 동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경제활동을 이윤이나 효율의 추구가 아니라 민중의 사회적필요성의 충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주도가 아니라 민중의 생활에 뿌리박은 연대와 지원에 의거한 활동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요구되어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시야에 넣어두고 “민중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기시다정권에 의한 전쟁국가만들기를 저지하자.

극동에서의 대립구조를 풀고 조선반도의 평화통일과 만민의 민주화, 민중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등의 과제에 대해 대화하고 결집·행동해 나가는 것을 피폭으로부터 78년째를 맞이하는 히로시마에서 호소한다.

- 일본정부에 대해 “핵무기금지조약”서명·비준을 요구하여 미국의 핵억지에 대한 의존정책으로부터 탈각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무기지대화를 실현하자. 그를 위해서도 일미한 군사동맹 강화에 반대하여 일미·미한·일미호인·RIMPAC(환태평양제국해군합동안습) 등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시켜야 한다.
-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부터의 즉시철퇴를 요구하여 NATO의 과잉개입을 용서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의한 모든 군사지원을 반대한다.
- 재일미군 및 자위대의 새로운 배비와 증강을 반대한다. 오키나와전희생자 유골이 포함되는 토사 등에 의한 헤노코신기지매립공사 및 류큐코의 자위대기지건설 즉시 중지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군사기지 및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서 행동하는 시민을 탄압하는 “중요토지구제법”의 즉시 폐지를 요구한다.
- 핵피해와 생태계파괴를 초래하는 원자력발전을 즉시 정지시켜 가동에 반대한다.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사고의 책임을 나라와 도쿄전력에 인정시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완전한 배상을 요구한다. 새로운 환경오염과 피폭을 가져오는 오염수의 해양방출계획을 중지하라. CO<sub>2</sub>삭감과 전력공급의 핍박을 명목으로 한 원자력정책을 반대한다.
- 일본정부에 대하여 재조피폭자·“검은 비”피폭자를 포함한 모든 피폭자에 대한 보상의 실행을 요구한다.
- 강제연행, 강제로동의 책임을 일본정부와 기업에, 또한 전시성노예제의 책임을 일본정부에 인정시켜 성실한 사죄와 배상, 다시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시책을 세울것을 요구한다.
- 아시아침략의 가해책임을 지는데서 2002년의 일조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일조간의 국교정상화, 식민지 지배의 사죄와 배상,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폐시키자.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제도”를 즉시 적용시켜야 한다.
- 원폭피해의 실상과 아시아침략의 거점이었다는 가해의 역사를 전하는 히로시마륙군피복지창 등의 역사적으로 귀중하고 중요한 전적·피폭건조물을 현재의 규모를 보존하고 활용할것을 요구한다.
- 군사쿠데타에 계속 저항하는 미얀마(버마)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정부와 진출기업의 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규탄한다.
-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군에 의한 군사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민중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다.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반대하는 가자, 서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그자신의 팔레스타인민중의 저항운동을 지지한다.
- 6월국회에서 가결·성립된 입관 “개악”법은 종래 입관법이 품은 근본적문제해결을 직시하지 않고 입관행정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구조를 온존·강화하는 것이다. 입관행정의 원류에는 전쟁이전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척의 과거가 있다. 일본사회는 지금이야말로 차별과 배척의 역사를 끝장내고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개악한 입관법의 시행에 반대한다. 국제인권기준에 준한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난민인정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8-6 히로시마 평화모임 2023 참가자일동  
연락처 E-mail 86tudo.hiroshima@gmail.com